



영등포교도소 찬불가 경연대회에 참가한 재소자분들은 찬불가를 합창하며 지난날을 참회하고 밝은 길로 나아가길 것을 다짐했다.

재소자 찬불가 경연 대회와 화합 무대

영등포교도소 11개팀 참가 '음성공양' 백련장학회 공동 주최... 9월엔 염불대회

를 통해 "찬불가 경연대회를 통해 지난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법우들 상호간에 우애와 화합을 다져 밝은 날로 나아가도록 기도한다"며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재소자분들은 영등포교도소 불가대합창단이 '당신의 미소'를 음성공양하는 가운데 직접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내빈들에게 증정했다.

이상규교수(한양대 음대) 객정현 포교사(前 국회의원), 불자 가수 김환선·남강수씨와 봉화회 정환희회장, 천태종지학 금강합창단(단장 최선화) 등 3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찬불가 경연대회

는 영등포교도소 11개팀이 참가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양재팀은 '해탈의 기쁨'을 합창하고, 이어 재봉팀의 '우리도 부처님같이', 혼련소 A팀의 '불국토를 향하여' 순으로 이어졌다. 부처님께 음성공양하는 재소자분들은 손에 손을 잡고 진지하고 힘차게 드넓은 강당을 울렸다. 이들은 매주 법회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해왔다.

전주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한 재소자는 찬불가 '바람부는 산사'의 가사가 너무 좋아 함께 참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혼련소 D팀이 '참회합니다'를 합창할 때는 참가한 불자 모두들

눈시울을 적셨다. 객정현포교사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이지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면서 찬불가를 듣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BBS 이근찬 아나운서가 특별출연하여 피리를 연주하고 만담을 펼쳐 재소자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천태종 금강합창단도 '부처님께 비읍니다' 등의 찬불가를 음성공양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관문사에서 선종기 4대와 과자류 20상자를 전달했으며, 원로불자가수 김환선씨가 영주 2백여개를 보시했다.

영등포교도소 불심회는 백련장학회와 함께 9월에 염불대회를 갖고, 12월에는 재소자 수계식 행사를 마련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자녀 안심하고...' 불교본부 발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불교운동본부' 발대식이 7월25일 강원도 고성 세계평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파라미터청년협회 회장 현근삼님과 신용사주지 도후스님, 조계총무원 사회국장 종서스님, 대검찰청 임희은 추진본부장과 파라미터 연합캠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팔리불교대 한국분교 입학식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가 7월 24일 동국 불교전법대학 강당에서 첫 입학식을 가졌다. 태종사 법주 도성스님을 명예학장으로 추대한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는 부처님 재세당시의 언어인 원진 팔리어와 불교영어, 상좌부불교, 대승경전 등을 가르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암스님, 약천사 조실 성공스님 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강북복지관 장애인위안 '늘푸른캠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영복지시설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창)은 7월23일 강북구청의 후원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인 '늘푸른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는 복지관내 직업재활 대상자와 물리·작업치료, 조기교실 이용 장애인 20명과 여름방학 정서놀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반 초·중학생 19명, 자원봉사자 19명, 인솔교사 14명, 학부모 3명 등이 참가했다.



봉은불교대학 258명 졸업

봉은불교대학(학장 원혜)은 7월26일 봉은사 법당에서 제25기 봉은불교대학 및 제11기 봉은야간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담임법사 원광, 총무 법일스님 등 봉은사 사중 스님과 졸업생 2백58명 및 가족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원혜스님은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저마다 현대의 보살이 되자"고 당부했다.

우리 모임에선

전북도청 수련회
전북도청 연우회(회장 권두삼)는 8일부터 10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금산사주지 도영스님의 법문과 활아정진,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융결제원 하계수련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재)는 22일부터 23일까지 강화도 보문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갖는다. 이날 수련회는 불자가족수련회로 진행된다.

하동불교수계법회
하이탈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22일부터 23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하계수련회 및 수계법회를 연다. 수련회는 법회에서 법주사주지 해광스님 법문과 수계법회, 철야정진 등으로 진행.

심우회 군법당 기공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8일 오전10시 76사단법당기공식을 갖는다. 기공식은 오전8시30분 강남고속터미널 주유소 앞.

국회 정각회장 선출 줄다리기
정당간 의견 불일치 3차례나 총회 연기

회장직을 놓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팽팽한 줄다리를 벌이고 있어 7월 31일 열기로 했던 국회정각회 총회가 다시 8월로 미뤄졌다. 이번 총회가 미뤄진 것은 아직 차기회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총회를 열었을 경우 다시 여야가 부딪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써 7월 10일로 임기가 끝난 서석재의원 후임회장 선출과 관련 여야간의 의견불일치로 국회정각회는 3차례에 걸쳐 총회가 미뤄지며 창립 이래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회의는 관례에 따라 집권여당에서 회장을 맡아야 한다며 박상규부총재를 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부총재가 초선이기 때문에 정각회 임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각회 정관에는 회장 선출규정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집권여당에서 관례로 회장직을 맡아왔다.

서석재회장은 "선출규정을 이제 와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리 만나서 여야 합의로 회장을 추대했으면 한다"며 "정각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교계에서는 "신당단체인 만큼 정치논리보다는 초당적으로 움직여 대립구도를 풀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동소방 살리기 나섰다
진관·혜국스님 등 62명 투자
한마음선원·내원사도 참여

불자기업 대동소방 살리기에 교계가 나섰다. 본지 184호 5면기사와 183호 광고가 나간뒤 7월28일까지 총 62명의 불자들이 대동소방살리기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찰도 한마음선원 내원사들이 동참한 것을 비롯하여 진관 성록 혜국인 암스님이 투자했다.

대동소방에 투자한 오혜숙씨는 "경쟁난을 맞아 불자기업을 살리는데 심시일반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동소방은 불자 벤처기업으로 매년 1백%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최근 주거래사인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도 후자부도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에 '불자기업에 1만 원만 투자해주시요' '1년뒤 투자금액의 1백20%를 돌려주겠다'라는 광고를 교계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이남제사장은 "투자가 얼마만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불자들의 격려가 큰 힘이다"고 말했다. 투자상담 (02)215-0723

"부처님 가르침 문학통해 전해요"

진리의 요체를 담은 술한 경전들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문학으로 전해 주고자 하는 이들, 바로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 회원들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88년 창단된 불교문학을 조망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심신진작은 물론 독자들의 마음에까지 밝은 불씨를 던져주고자 창립했다. 회원은 등단한 사람이면서 불심이 돈독한 문인들로 부처님 가르침을 문학화하는 일로 자신의 정진을 다지고자 하는 이들로 구성된단문인 1백여명 회원회지 '실상문학' 펴내 성취에 있다.

창립 당시 20여명이었던 회원이 이제는 1백여명으로 늘어나 회지인 '실상문학' 발행작업, 밀양포충사 순례, 불교문학세미나, 부산 불교문인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불법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산불교문인협회에서 역량을 문인을 뽑는 신인문학상을 제정해 청학스님, 장기연씨, 성홍영씨 등의 수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진주 청곡사, 고성 옥전사 산사 순례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산사순례라 법회를 소재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

그동안 회원들은 판관사건의 바다에서 건져올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 시조, 소설, 수필로 꿰어 일반인들에게 건네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들의 시 한수, 소설 한편은 그들의 수행이면서 곧 포교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작의 결실들이 일컬어 모자져 '실상문학(實相文學)'을 통해 일반 불자들에게 전해진다.

불교문학세미나·실상문학 신인상 시상식
주최: 부산불교문인협회 정소·동명법원 일시: 8월25·26일 8월27일

◇매년 여름 갖는 불교문학세미나를 통해 불교문학의 발전과 진로를 모색한다.

박필삼 사무국장은 "앞으로 실상문학 발전을 위한 포교활동에 각 회원들은 물론 여러 시행단체나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사이래 소방기자계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사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둬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부도금액의 4할 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담보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들의 수급도 난

망하여 3/4분기 변제해야할 3억원에 상당하는 부도금액 변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이 만원씩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번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이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도 IMF위기에 불구하고 이미2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현재 \$200,000 가량의 L/C가 내도 예정이며 또한 약\$300,000의 추가수입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액이나마 \$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로써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

심 노력하여 건설하고 튼튼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은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변제 및 제조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할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

① 하기 당시구체로 민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던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모금액수: 5억원
• 투자한도: 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 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참고로 저희회사에 대해서는 불교신문 5월 26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 26일자, 현대불교 5월 27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 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 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대표이사 智眼 이남제 외 임직원일동 송수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72-07640-717
농협:258-17-000764

예금주
(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대표전화(0561)772-0729 FAX (0561)772-3923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공정 경북 포항시 북구 철하면 서정리 679

*** 7월 28일까지 투자자 명단 ***
진관스님 서태은 김경에 이경자 우선자 내원사스님 신정욱 이경자 이창도 황창영 김청수 성정현금 김형진 장문자 김광훈 이효숙 임화순 허종범 이두진 이동훈 임명덕 천경남 이진구 윤정연 김춘연 오혜숙 노건성 박순자 정인순 이점심 문유미 장영찬 인운기 장정혜 김은희 최승숙 하병식 강은주 김민욱 맹길재 이종욱 이현호 임환숙 이경에 김정복 유명섭 최기순 장준혁 조규동 신동준 임화섭 남규홍 전승철 박상필 김숙자 최인영 인암스님 이태우 성복스님 한마음선원 혜국스님 이기남(총62명)